

스리랑카

7년만의 정권교체로 내전 종식과 경제 회복 기대 고조

내전악화와 경기침체로 정국이 매우 혼미한 가운데 지난 해 12월 5일 실시된 스리랑카 총선에서 야당인 국가통일전선(United National Front)이 집권당인 인민동맹(People's Alliance)을 누르고 사실상 의회 과반수 의석 확보에 성공하면서 7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계속되는 내전과 가뭄에다 세계경기의 침체라는 외적 요인까지 겹쳐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내전의 평화적 종식을 내세운 야당의 총선 승리가 내전 종식과 경제 회복의 실마리가 될 것 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혼미한 정국 상황 속에서 총선거 실시

2001년 초 제1야당인 국가통일전선을 이끌던 위크레메싱헤(Wickremasinghe)가 쿠마라통가(Kumaratunga) 정권의 독재 정치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의회의 불신임 투표를 결의하자, 이에 맞선 쿠마라통가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인민해방전선

(People's Liberation Front)과 연합하여 과반수 의석 확보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9명의 의원이 쿠마라통가 대통령이 이끌던 집권연정을 탈퇴함으로써 인민연합은 의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잃게 되었고, 지난 10월 쿠마라통가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12월 5일 총선 이전부터 각종 폭력과 유혈 충돌이 난무하여, 10월 21일 이후 약 8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선거 폭력감시센터가 밝혔다. 이처럼 총선 폭력이 잇따르자 스리랑카 정부는 4만 명의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3천 명의 육군 병력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총선 당일에도 투표 참가가 저지된 북동부 타밀족 거주지에서는 폭력사태로 인해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유혈 폭력으로 얼룩진 총선의 개표 결과, 쿠마라통가 대통령이 이끄는 인민동맹은 전체 225석 가운데 77석을 얻는 데 그

<표 1>

총선 관련 주요 사건 일지

일 자	사 건 개 요
2001. 7. 24.	타밀 반군, 콜롬보 국제공항 습격
2001. 10. 10.	총선 실시 결정
2001. 10. 11.	의회 해산
2001. 12. 5.	총선 실시
2001. 12. 9.	신임 총리 취임

자료: 필자정리.

친 반면, 국가통일전선은 동맹관계인 이슬람 정당과 함께 과반수보다 2석이 많은 114석을 확보, 7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하였다.

정권 교체로 내전 종식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고조

국가통일전선의 승리로 내전의 평화적 종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타밀 반군에 대한 강력한 군사행동을 주장했던 인민동맹과 달리, 국가통일전선은 평화협상을 통한 내전 종식을 주장해 왔다. 한편, 분리독립을 주장해 왔던 타밀 반군도 지나 11월 27일 브리도리 오구르 철회하는 등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어, 정부와 반군간에 평화협상 추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가통일전선의 승리는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인민동맹은 인민해방전선과 연정을 구성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바 있다. 인민해방전선이 연정결성의 조건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을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경제개혁의 후퇴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국가통일전선은 시

장 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위크레메싱헤 신임 총리는 1972년 당시 스리랑카 최대의 언론사 Lake House의 경영권을 인수할 예정이었으나 국유화 조치로 인해 그 꿈이 좌절된 경험이 있는 재계 출신 인사로 알려져 있어, 투자자들의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콜롬보 종합주가지수는 작년 7월 반군의 공항 습격의 여파로 8월에는 연중 최저수준인 383포인트를 기록하였고, 이후 10월 중순까지 400포인트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야당의 승리가 예상된 선거 전날 주가는 526포인트까지 치솟았으며, 총리가 취임한 9일에는 연중 최고수준인 678포인트에 달하였다.

대통령의 공조 여부가 무제 해결의 관건이 될 전망

그러나 신임 총리와 쿠마라통가 대통령 사이의 갈등 해소가 내전 종식 및 경기 회복의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국가통일전선과 대통령간의 불편한 관계는 위크레메싱헤 총리가 취임 바로 다음날 쿠마라통가 대통령에게 조각(組閣)에 관여하지 말 것을 주장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

나고 있다. 현 스리랑카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리와 협의하되 총리가 천거한 각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총리의 조각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쿠마라통가 데토려드 해시 오지이 구바 민 케저자관의 임명권한을 양보함에 따라 신임 내각과 대통령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각료 임명권과 의회 해산권을 가지며 임기가 2005년까지인 대통령과 신임 내각의 공조가 원만히 지속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집권 국가통일전선과 타밀 반군과의 관계도 해결되어야 할 현안으로 남아있다. 반군과의 평화협상 및 제재 해제 등을 구하는 데가 국가토이저서오 이비 초서에서

15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타밀당과의 의회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위크레메싱헤 총리의 신임각료 임명 당일, 타밀 반군은 스리랑카 북동부 지역의 군대와 경찰 기지를 공격하고 주요 통신기지를 파괴하여 3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같은 반군의 무력투쟁이 계속된다면, 내전의 평화적 종식을 주장하고 있는 국가통일전선의 입지가 줄어들고 경제의 조기회생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와 반군과의 평화협상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내전의 종식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鄭顯唱】